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목회자 및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21. 7. 26.

CTS 기독교TV

조사기관: ㈜지앤컴리서치



차 례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3
2. 조사설계	3
3. 조사의뢰 기관 및 조사수행 기관	4

제 2 장. 조사 결과 분석

Part1. 학부모 조사

I. 한국 교육 인식	10
1. 공교육의 교육 영역별 중요도와 충족도	10
2. 공교육 신뢰도와 문제점	10

II.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

1.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 수준	12
2. 기독교 대안학교 인지 경로	12
3. 자녀의 기독교 대안학교 재학 실태	13
1) 기독교 대안학교 재학 자녀	13
2)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낸 이유	13
4.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만족도	14
5.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성	14
6.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	15
7.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16
1) 기독교 대안학교로 선호하는 조건	16
2) 기독교 대안학교 적정 교육비	16
3) 기독교 대안학교 인가 여부에 대한 태도	17
4) 기독교 대안학교 성격	17
8.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18

Part2. 목회자 조사

I. 한국 교육 인식	22
1. 공교육의 교육 영역별 중요도와 충족도	22
2. 공교육 신뢰도와 문제점	22
II.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	24
1.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 수준	24
2.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성	24
3.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실태	25
1)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여부 및 계기	25
2)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동기 및 애로 사항	26
3)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종류	27
4)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재정 후원	27
5)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만족도	28
4.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및 관심도	29
1) 교회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찬반 의견	29
2) 본인 시무 교회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관심도	29
5.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조건	30
1)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과정	30
2)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종류	31
3)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통학 형태	31
4)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성인가 형태	32
5)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성격	32
6)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는 경우 설립 의향	33
7) 원하는 조건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 후원 의향	33
6.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34
1)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34
2)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	34
7. 기타	35
1) 지역 사회의 기독교적 보육(돌봄)과 교육을 위해 교회 공간 제공 의향	35
2) 주중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35
3) 주중 청소년을 위한 신앙 교육 필요성	36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한국 교육은 모든 교육이 입시 교육으로 귀결된다는 지적이 많다. 입시 교육은 모든 학교를 사실상의 학원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닌 건전한 인격체로 자라도록 하는 전인적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
- 일반 학교교육 그리고 입시교육 체제는 공동체적 인간을 지향하는 기독교 인간관과 상반된 교육 지향성을 가진다. 특히 다종교사회에서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미션 스쿨에서도 기독교 가치관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대안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기독교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 본 조사는 기독교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등 기독교 대안교육/학교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를 수요자(개신교인)와 공급자(교회) 차원에서 파악하여 CTS의 다음세대 세우기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 설계

(1) 학부모 조사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만 0세~18세 자녀를 둔 기독교(개신교) 학부모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방법	●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 총 1,0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 만 30~55세 개신교인 지역/성별/연령 비례할당추출 후 가중치 부여 - 2015 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에 근거
표본 오차	● 무작위 추출법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 2021년 6월 15일 ~ 6월 21일(7일간)

(2) 목회자 조사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개신교 교회 담임 목사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방법	● 목회자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
표본 규모	● 총 336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 교회 규모 분포를 고려한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 2021년 6월 17일 ~ 7월 5일(19일간)

3. 조사의뢰 기관 및 조사수행 기관

- 조사의뢰 기관 : (주)기독교텔레비전 CTS
- 조사수행 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제 2 장. 조사 결과 분석



Part 1. 학부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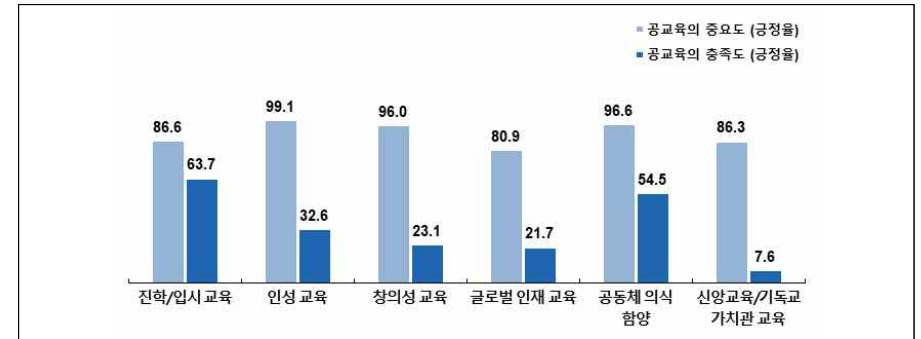
I 한국 교육 인식

1. 공교육의 교육 영역별 중요도와 충족도

- 이번 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다양한 영역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인성 교육'(99.1%)과 '공동체 의식 함양'(96.6%) 그리고 '창의성 교육'(96.0%)을 중요시했다.
- 각 영역을 공교육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지를 분석했을 때,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충족도가 낮았다. 즉 불충족도(중요도-충족도)가 '인성 교육'은 66.5%p, '창의성 교육'은 72.9%p로서 가장 높았다. '신앙교육/기독교 가치관 교육'은 불충족도가 78.7%로 가장 높았다.
- 즉 '신앙교육/기독교 가치관 교육'과 '인성 교육', '창의성 교육'에서 학부모들의 교육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공교육의 교육 영역별 중요도와 충족도 (4점 척도, 매우+약간)

(Base=전체,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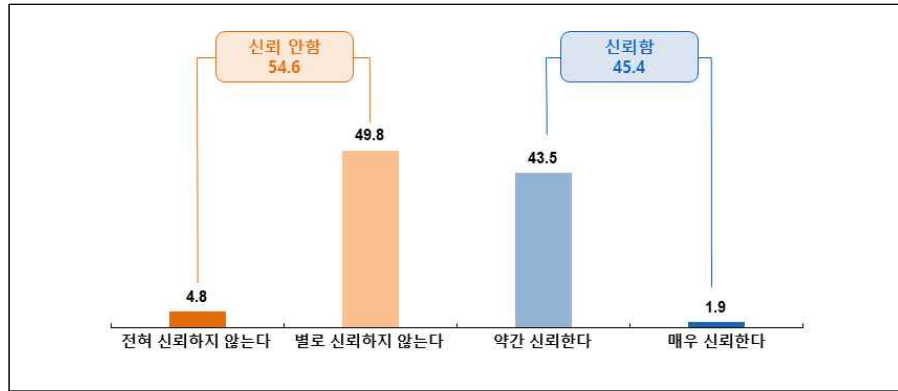


2. 공교육 신뢰도와 문제점

-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45.4%로 약간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신뢰한다'는 응답도 자세히 보면 '약간 신뢰한다'가 43.5%고 '매우 신뢰한다'는 1.9%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신뢰도도 낮지만 신뢰 강도가 특히 약한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 공교육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시교육 일변도'(23.0%)와 '획일적인 교육'(22.9%)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학부모들은 지적했다. 또한 '인성 교육 부족'(18.5%)과 '창의성 교육 부족'(14.4%)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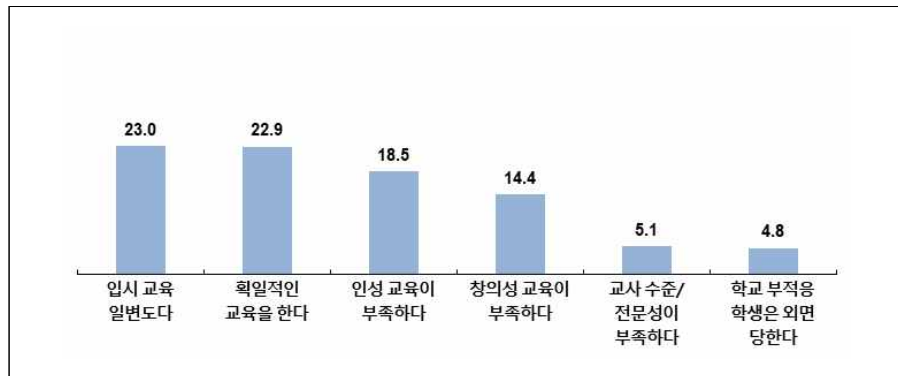
[그림] 공교육 신뢰도

(Base=전체, N=1000, 단위 : %)



[그림] 공교육의 문제점

(Base=전체,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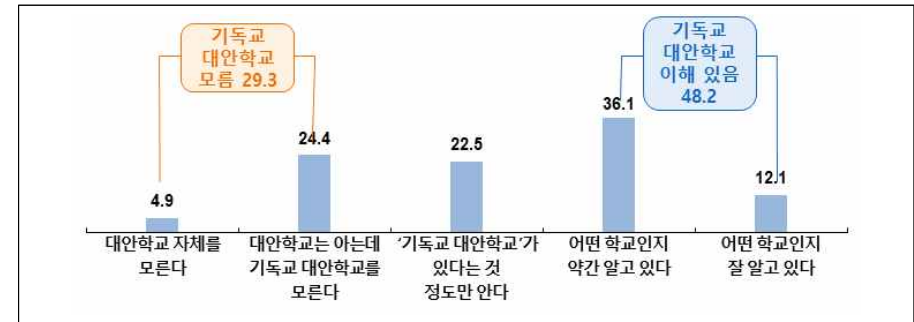
II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

1.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 수준

- '기독교 대안학교' 자체를 모르는 비율은 29.3%였고, 나머지 70.7%는 최소한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명칭은 알고 있어서 기독교 대안학교 인지도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해하고 있는 비율은 48.2%로 절반이 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어떤 학교인지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12.1%로 낮았다. 아직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 수준

(Base=전체,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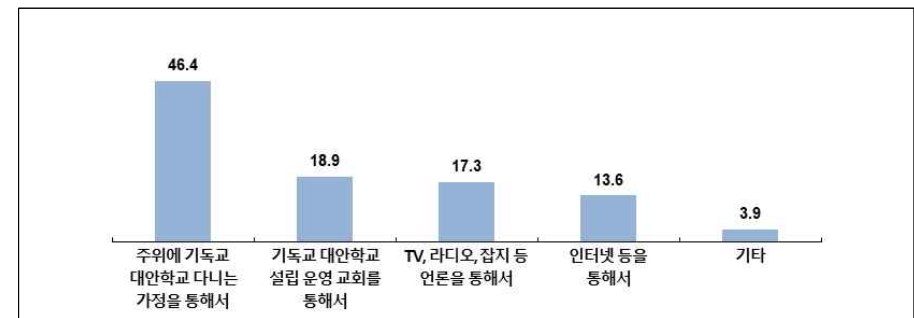


2. 기독교 대안학교 인지 경로

-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명칭이라도 아는 학부모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알게 된 경로는 주로 '주위의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는 가정을 통해서'(46.4%)이었다.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운영 교회를 통해'(18.9%)와 'TV, 라디오, 잡지 등 언론을 통해'(17.3%)는 20% 이하였다. 주로 구전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알려졌고, 공식적인 홍보 활동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 인지 경로

(Base=기독교 대안학교 인지자, N=70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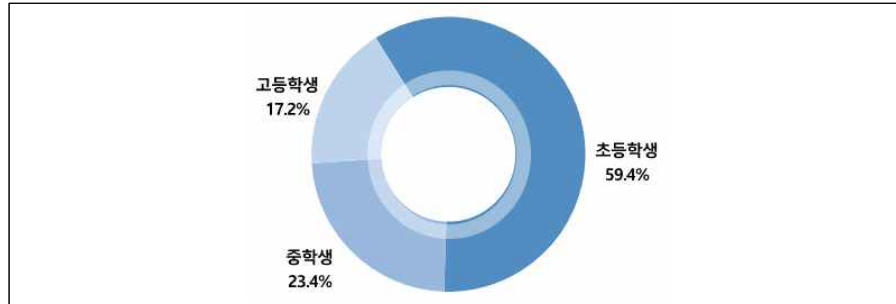


3. 자녀의 기독교 대안학교 재학 실태

1) 기독교 대안학교 재학 자녀

- 부모들에게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비율이 5.6%로 조사되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주로 초등학생(59.4%)이었고, 중학생은 23.4%, 고등학생은 17.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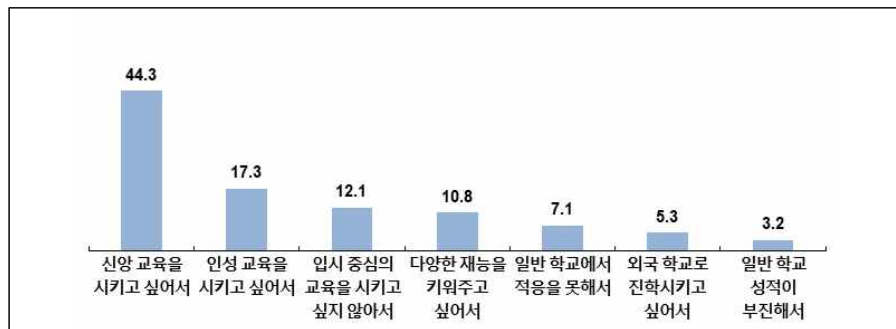
[그림] 자녀의 기독교 대안학교 재학 학교 과정 (Base=기독교 대안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 N=56, 단위 : %)



2)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낸 이유

-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낸 이유는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가 44.3%였다. 그 다음으로는 '인성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17.3%)였고 '입시 중심의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12.1%)와 '다양한 재능을 키워주고 싶어서'(10.8%)를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다. 공교육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충족시키려는 것이 동기로 작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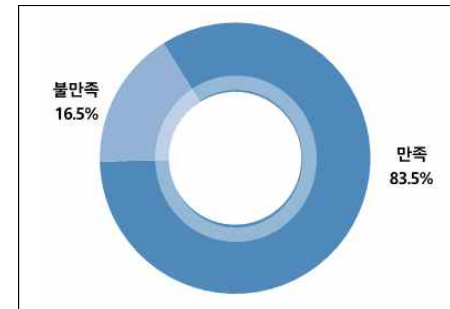
[그림]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낸 이유 (Base=기독교 대안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 N=5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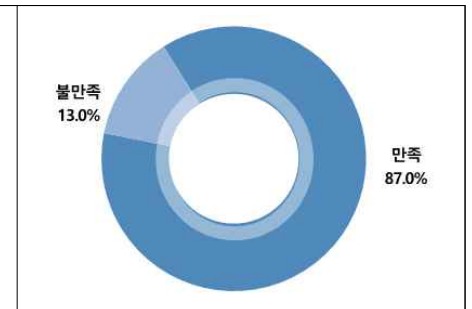
4.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만족도

- 기독교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만족도가 83.5%로 매우 높았고 불만족도는 16.5%로 낮았다.
-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들도 매우 만족(87.0%)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학부모들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준다'(52.5%)였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32.1%),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재능을 키워준다'(28.8%)였다.
- 학부모들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비가 비싸다'(52.3%)였으며, '교사의 전문성/자질'(28.4%), '교육 내용'(28.4%)과 같은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에 만족도-부모 (n=56)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에 만족도-학생 (n=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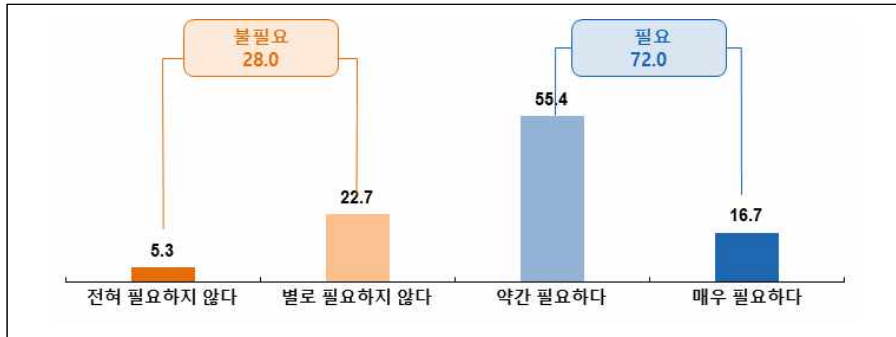


5.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성

-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 설명했을 때 72.0%의 부모가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모들은 그 이유로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를 63.8%,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을 시켜서'를 59.6%가 응답해서 '신앙 교육'과 '자유로운 교육'이 대안학교 필요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공교육이 기본이므로'를 절반 이상인 56.8%가 응답했다. 자녀를 공교육에서 배제시켰을 때 부딪힐 수 있는 사회적 어려움을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 학교는 필요하지 않아서'(41.0%)와 '학력 인정이 안된다고 해서'(39.5%)가 40% 안팎의 응답률을 보여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성

(Base=전체,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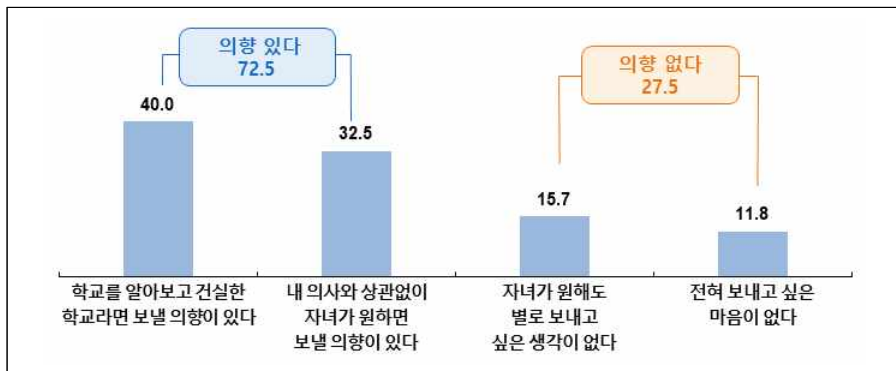


6.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

-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의향이 있다'가 72.5%로 4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의향을 보였다. 그만큼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 관심이 있고 호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 '건실한 학교라면 보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크므로 학교의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47.3%)와 '다양한 재능을 키워주고 싶어서'(45.5%)였다. '입시 중심의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와 '인성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는 각각 38.8%와 35.1%의 응답률을 보였다.
-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는 그 이유로 '신앙 교육을 학교에서까지 시키고 싶지 않아서'(48.3%)와 '자녀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서'(46.8%)를 응답했다. 즉 자녀를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이라는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이다. 그 외에 '운영이 부실한 학교가 많다고 해서'가 34.6%였다.

[그림]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진학시킬 의향

(Base=전체, N=1000, 단위 : %)



7.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조건

1) 기독교 대안학교로 선호하는 조건

- 기독교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는 부모들의 절반 정도는 초등학교 과정(55.3%)과 중학교 과정(55.1%)으로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유치원 과정은 21.8%, 고등학교 과정은 28.5%였다.
-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교 종류로는 '전일제 학교'가 61.9%로 단연 높았다. '전일제 학교'와 큰 차이를 두고 '방과 후 학교'(15.5%), '주말학교'(12.9%)가 뒤를 이었다.
- 기독교 대안학교를 매일 집에서 다니는 '통학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71.2%,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숙형' 11.8%로 '통학형'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표]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기 적합한 연령대

(Base=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 보낼 의향이 있는 응답자, N=72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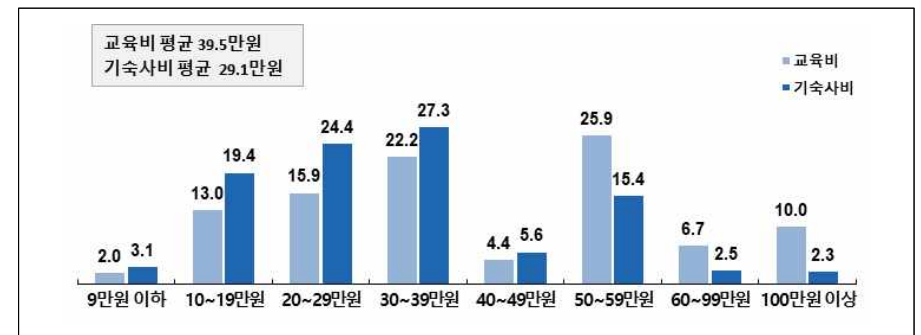
연령대(중복응답)		운영 형태		통학 형태	
- 유치원 과정	21.8	- 전일제 학교	61.9	- 통학형	71.2
- 초등학교 과정	55.3	- 방과 후 학교	15.5	- 기숙형	11.8
- 중학교 과정	55.1	- 주말 학교	12.9	- 상관없다	13.7
- 고등학교 과정	28.5	- 홈스쿨링	4.6	- 잘 모르겠다	3.3
		- 잘 모르겠다	5.2		

2) 기독교 대안학교 적정 교육비

- 기독교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는 부모들에게 교육비로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질문했을 때 월 50~59만 원을 응답한 비율이 25.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월 30~39만 원을 응답한 부모들도 그에 못지 않은 22.2%나 되었다. 월 평균으로는 39.5만 원이었다.
- 기숙형을 선택한 부모는 기숙사비로 월 30~39만 원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27.3%, 월 20~29만 원이 24.4%였으며 월 평균으로는 29.1만 원이었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 적정 교육비

(Base=교육비 :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 보낼 의향이 있는 응답자, N=725, Base=기숙사비 : 기숙형 선호/상관없다/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N=20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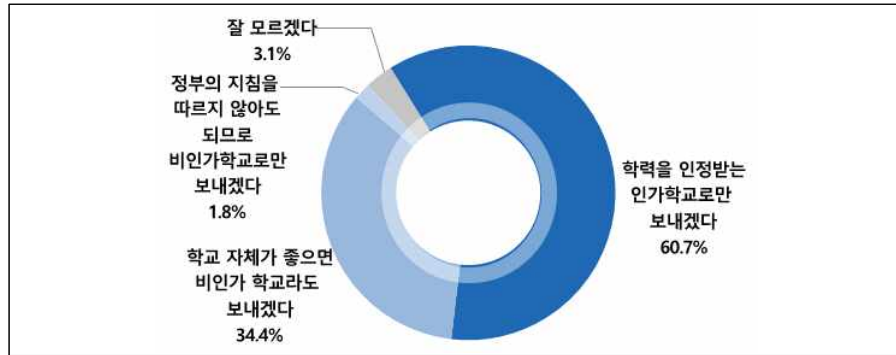


3) 기독교 대안학교 인가 여부에 대한 태도

- 기독교 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인가형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가형이 있는데, 학부모들은 10명 가운데 6명인 60.7%가 '인가학교로만 보내겠다'는 응답을 했으며, '비인가학교로만 보내겠다'는 비율은 1.8%로 인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학교 자체가 좋으면 비인가 학교라도 보내겠다'는 응답은 34.4%였으므로 비인가 학교 수용도가 36.2%로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었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 인가 여부에 대한 태도

(Base=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 보낼 의향이 있는 응답자, N=72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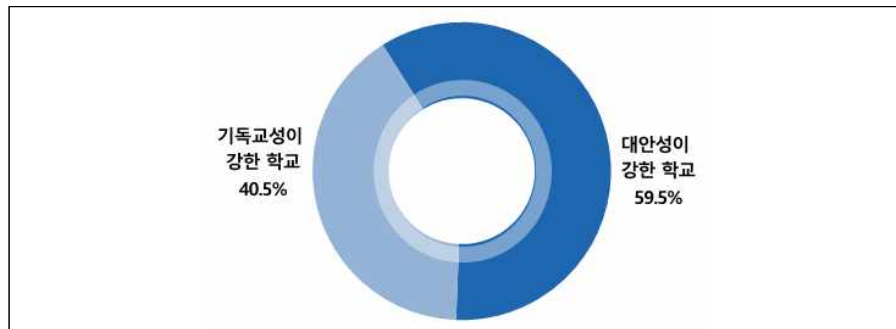


4) 기독교 대안학교 성격

- 기독교 대안학교는 교육 내용에서 대안성과 기독교성의 양대 축이 있는데, '대안성이 강한 학교'를 원하는 비율이 59.5%, '기독교성이 강한 학교'를 원하는 비율이 40.5%로 '대안성이 강한 학교'를 더 많이 원하고 있었다.

[그림] 자녀를 보내고 싶은 기독교 대안학교

(Base=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 보낼 의향이 있는 응답자, N=72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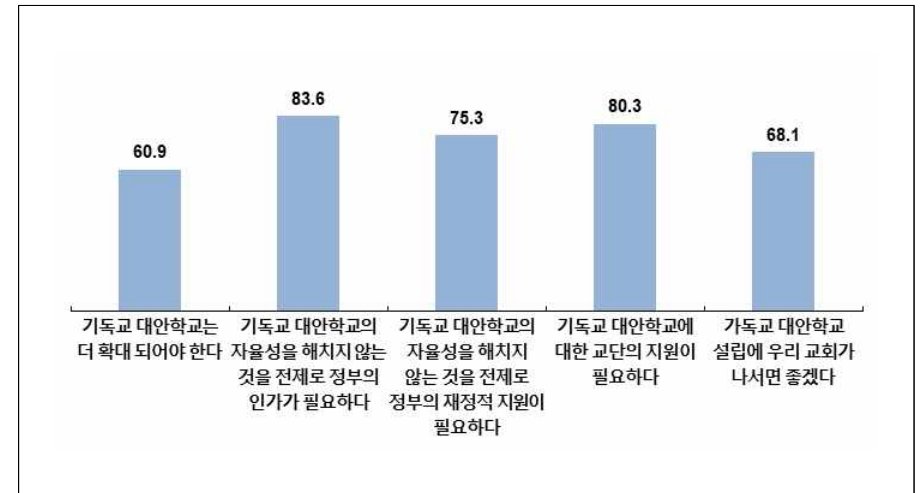


8.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 '기독교 대안학교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60.9%가 동의해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았다.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우리 교회가 나서면 좋겠다'는데 대해서도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찬성해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하지만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교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보였다. 즉 '기독교 대안학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3.6%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교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80.3%라는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4점 척도, 매우+약간 동의한다)

(Base=전체, N=1000, 단위 : %)



Part 2. 목회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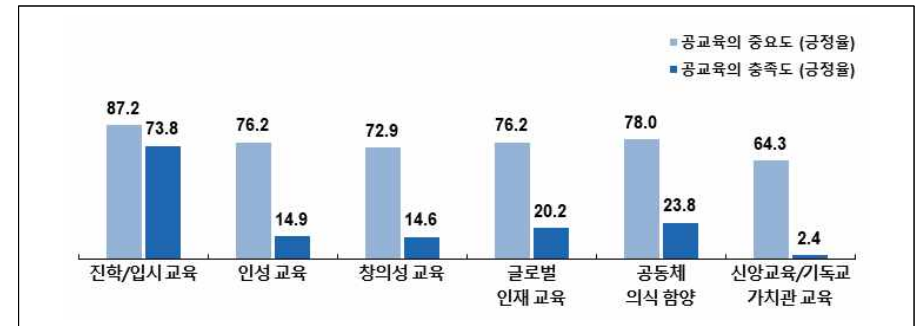
I 한국 교육 인식

1. 공교육의 교육 영역별 중요도와 충족도

- 목회자들은 6개 교육 영역 가운데 '진학/입시 교육'(87.2%)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른 교육 영역은 73%~78%로 고른 중요도 비율을 보였으며, '신앙교육/기독교 가치관 교육'의 중요도는 64.3%로 높았다. 참고로 학부모들은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99.1%)고 응답했다.
- 불충족도(중요도-충족도)를 보면, 불충족도가 가장 큰 영역은 '신앙교육/기독교 가치관 교육'이 61.9%, '인성 교육'이 61.3%로 가장 컸다. 즉 목회자들은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이 공교육에서 가장 결여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학부모 조사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림] 공교육의 교육 영역별 중요도와 충족도

(Base=전체, N=33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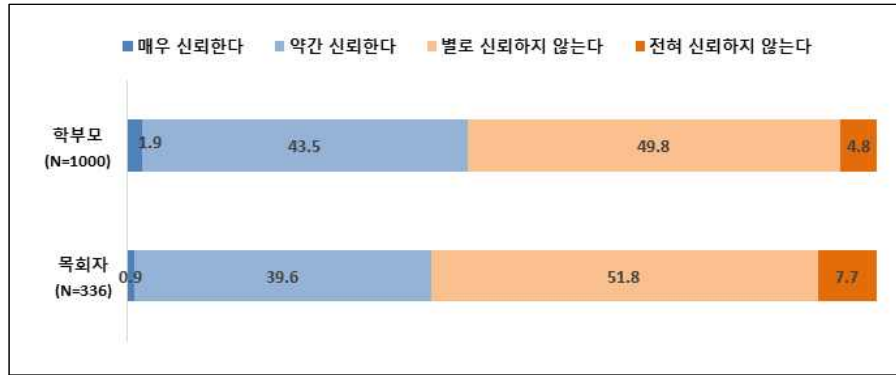


2. 공교육 신뢰도와 문제점

-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약간)' 40.5%,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 59.5%로 공교육을 불신하는 목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을 불신하기는 학부모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학부모의 신뢰도(45.4%)보다 더 낮았다.
- 목회자들은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입시교육 일변도'(31.8%)라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인성교육 부족'(16.1%), '획일적인 교육'(14.3%) 순이었다. 한편으로는 '반기독교 교육을 해도 막을 수 없다'(11.6%)와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한다'(8.3%)와 같이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 목회자들은 '입시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 것은 '입시교육'의 현실적 불가피성과 그것 일변도일 때 나타나는 다른 교육 영역의 피해를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공교육 신뢰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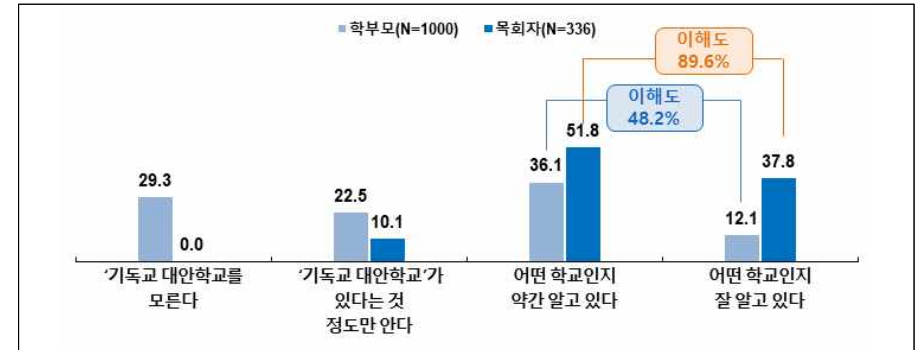
II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

1.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 수준

-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수준은 목회자가 학부모보다 꽤 높은 수준이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가 있는 비율이 학부모는 48.2%로 절반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목회자는 89.6%로 대부분 알고 있었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 인식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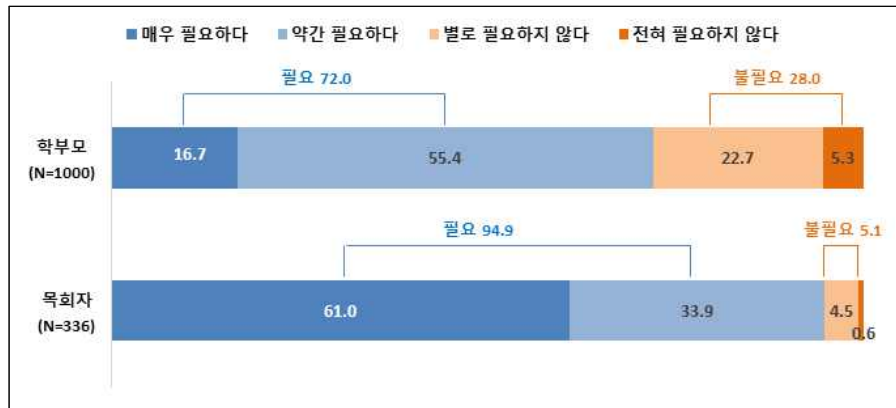


2.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성

-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 여부에 대해 목회자 10명 중 6명(61%)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약간 필요하다' 33.9%까지 포함하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9%였다. 거의 모든 목회자가 기독교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가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56.7%,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 부적응 학생을 돕는 교육을 해서'와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어서'는 각각 9.7%와 9.1%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공교육이 기본이므로'(76.5%/17명 중 13명)였다.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 학교는 필요하지 않아서'(47.1%)와 '귀족 학교라는 안 좋은 시선이 있어서'(35.3%)도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었다. '학업/진학에 도움이 안돼서'(5.9%)와 '학력 인정이 안된다고 해서'(5.9%)는 거의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학부모들은 오히려 이 이유를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것은 학부모와 목회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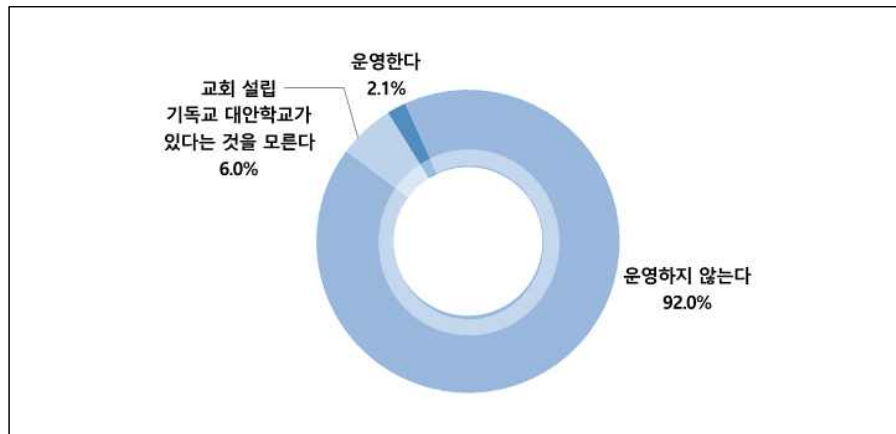
3.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실태

1)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여부 및 계기

- 현재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어느 정도 될까? 본 조사 표본 교회의 경우 2.1%(7교회)가 운영하고 있었다.
-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목회자(N=7) 가운데 2명은 'CTS 캠페인을 보고 운영했다'고 했으며, '주위에서 권유해서' 1명, '기독교 대안학교 활동을 보고' 1명, '홈스쿨에서 전환' 1명으로 조사됐다.

[그림]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여부

(Base=전체, N=33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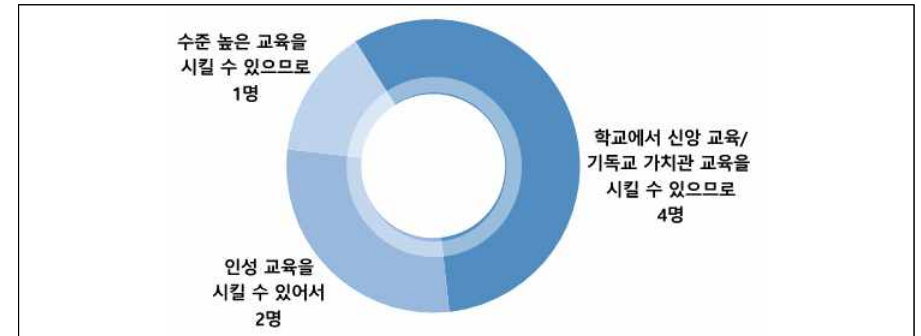


2)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동기 및 애로사항

- 기독교 대안학교를 교회에서 운영하게 된 동기로는 '신앙교육/기독교 가치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으므로' 2명, '수준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므로'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독교 가치관 교육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동기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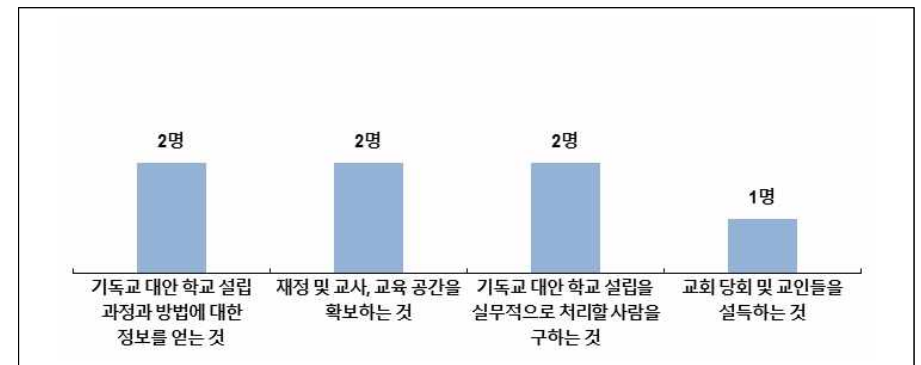
(Base=기독교 대안학교 운영자, N=7, 단위 : %)



-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애로 사항으로는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과정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2명), '재정 및 교사, 교육 공간을 확보하는 것'(2명),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을 실무적으로 처리할 사람을 구하는 것'(2명) 등을 응답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필요성과 동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애로 사항

(Base=기독교 대안학교 운영자, N=7, 단위 : %)



3)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종류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종류는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운영 과정을 질문했는데(중복응답), '초등학교 과정' 5명, '중학교 과정' 5명, '유치원 과정' 4명, '고등학교 과정' 4명 등으로 각 학교급별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 운영 형태로는, 하루 종일 운영하는 '전일제 학교'가 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공교육을 마치고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1명, 주말에만 운영하는 '주말학교' 1명이 응답했다.
- 통학 형태로는 '통학형' 5명, '기숙형' 2명으로, 기숙형보다는 통학형이 더 많았다.
- 교육부 인가 여부를 보면, '인가 학교' 1명, '비인가 학교' 6명으로 대부분이 비인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종류

(Base=기독교 대안학교 운영자, N=7,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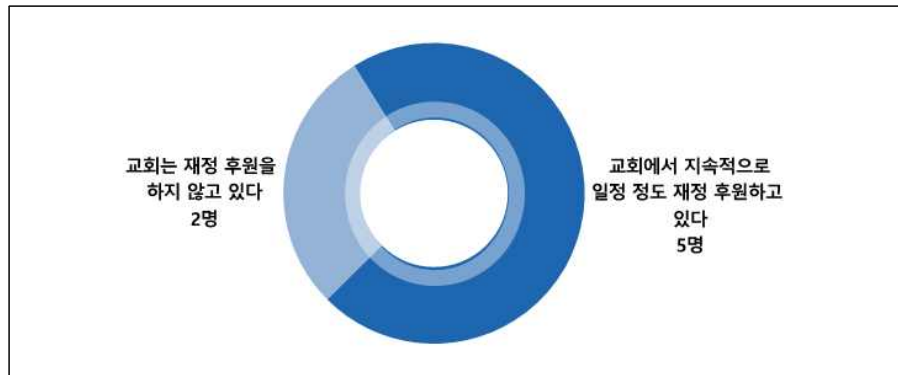
연령대(중복응답)	운영 형태	통학 형태	교육부 인가 여부
유치원 과정	전일제 학교	통학형	인가학교
초등학교 과정	방과 후 학교	기숙형	비인가학교
중학교 과정	주말 학교		
고등학교 과정			

4)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재정 후원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을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일정 정도 재정 후원하고 있다' 5명, '재정후원을 하고 있지 않다' 2명으로 재정 후원을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훨씬 많았다.

[그림]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재정 후원

(Base=기독교 대안학교 운영자, N=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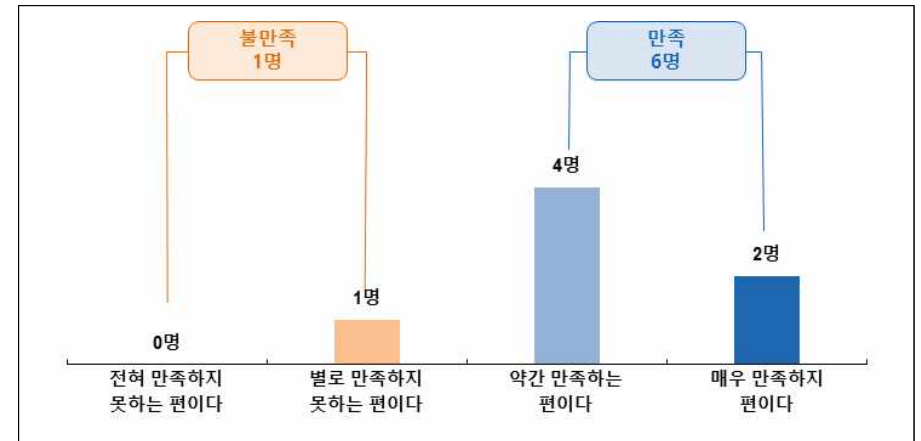


5)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만족도

-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만족' 6명, '불만족' 1명으로 대부분의 목회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만족 이유(N=6명)를 살펴보면, '교육효과가 나타나서' 4명, '학생들의 성장이 보여서' 2명으로 응답했다.
- 한편, 불만족 이유(N=1명)로는 '교육 효과를 느끼지 못해서' 1명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신앙교육/기독교 가치관 교육을 취지로 설립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 운영 만족도

(Base=기독교 대안학교 운영자, N=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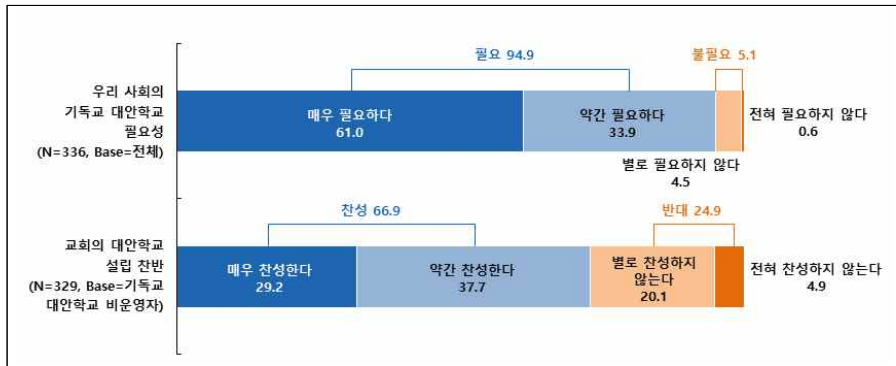
4.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및 관심도

1) 교회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찬반 의견

-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목회자들(N=329) 3명 중 2명 정도(66.9%)가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찬성(매우+약간)' 의견을 보였고, '설립 반대' 의견은 24.9%로 '설립 찬성' 의견이 상당히 더 높았다.
- 교회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교에서 신앙교육/기독교 가치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므로'가 71.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18.2%)도 중요한 이유로 응답했다. 반면에 '인성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7.7%)와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므로'(0.9%)와 같은 이유는 응답률이 낮았다.
- 이번에는 대안학교 설립 반대 이유를 보면, '학교를 설립 운영할 예산/인프라가 부족하다'(40.2%)와 '교회는 교육 비전문가이므로'(39.0%) 응답이 비슷하게 높았다. '대안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12.2%였고, '교회는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라는 이유는 4.9%로 매우 낮았다. 교회 규모에 따른 다양한 기독교 대안학교 모델이 개발되면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림] 교회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찬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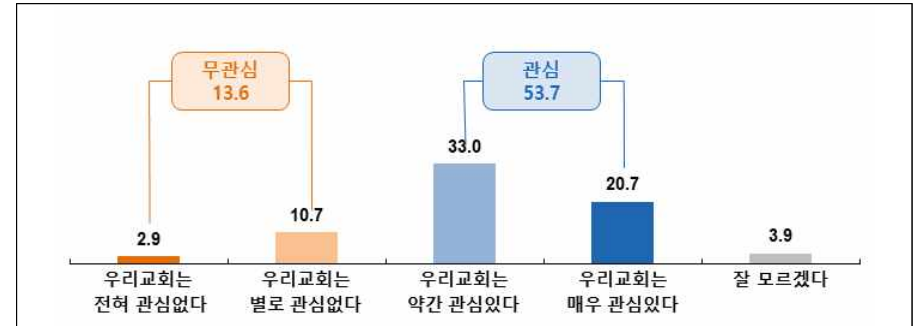
2) 본인 시무 교회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관심도

- 기독교 대안학교 비운영 목회자(N=329) 가운데 절반인 50.5%는 본인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 '매우 관심있다' 비율이 19.5%로 적지 않은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 본인 시무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관심있는' 목회자(N=162)들은 공교육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신앙 교육/기독교 가치관 교육을 시킬 수 있다'(64.5%)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 또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20.5%)와 '인성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12.7%)도 주요 이유로 응답했다. 그 외에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으므로'(1.2%),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므로'(1.2%)도 언급했다.
- 교회의 대안학교 설립에는 찬성(66.9%)했지만, 막상 본인 시무 교회에서의 설립에는 관심이 없던 13.6%(42명)의 목회자들은 '교회 예산이나 규모가 학교를 설립 운영할만한 수준이 아니다(69.0%)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교회가 학교를 설립 운영할 전문성이 없다'(28.6%), '교회 성도들이 반대할 것 같다'(2.4%)를 제시하여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교회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모델 개발과 교회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림] 본인 시무 교회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관심도

(Base= 기독교 대안학교 비운영자 N=32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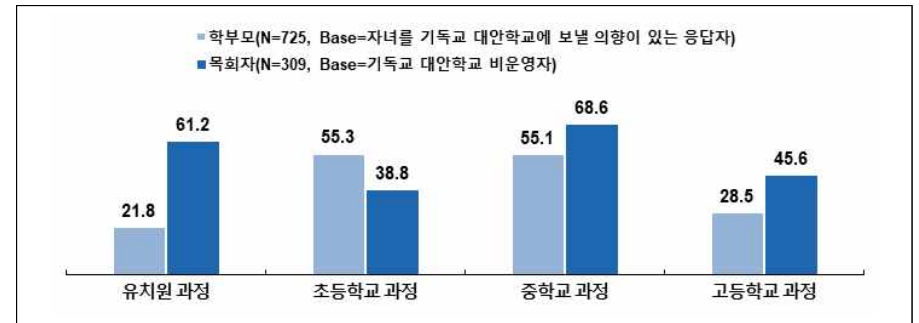
5.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조건

1)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 과정

- 선호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 중복으로 응답받은 결과, '중학교 과정'이 6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치원 과정' 61.2%, '고등학교 과정' 45.6%, '초등학교 과정' 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 과정을 가장 선호하는 학부모와 달리 목회자들은 유치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가장 선호했다.

[그림]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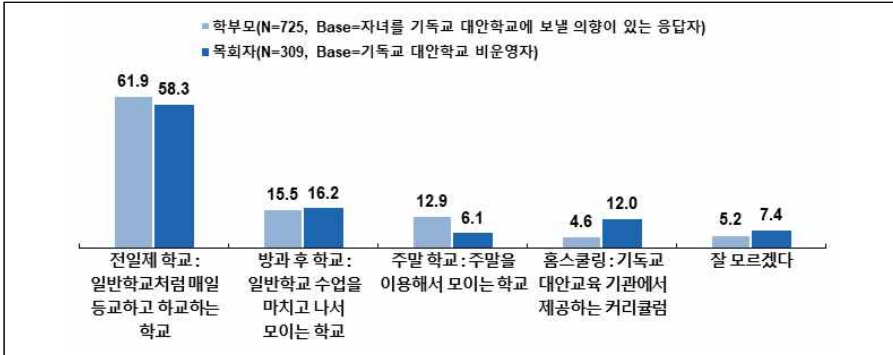
(중복응답, 단위 : %)



2)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종류

-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종류(기독교 대안학교 비운영 목회자 대상)로는 '전일제 학교'가 5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과 후 학교' 16.2%, '홈스쿨링'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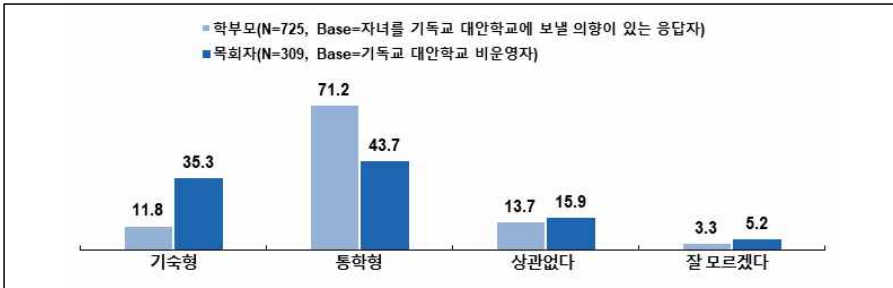
[그림]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종류 (단위 : %)



3)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통학 형태

-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통학 형태는 '통학형'(43.7%)이 '기숙형'(35.3%)보다 더 높았다.
- 이를 학부모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학부모들(71.2%)은 통학형을 목회자(43.7%)보다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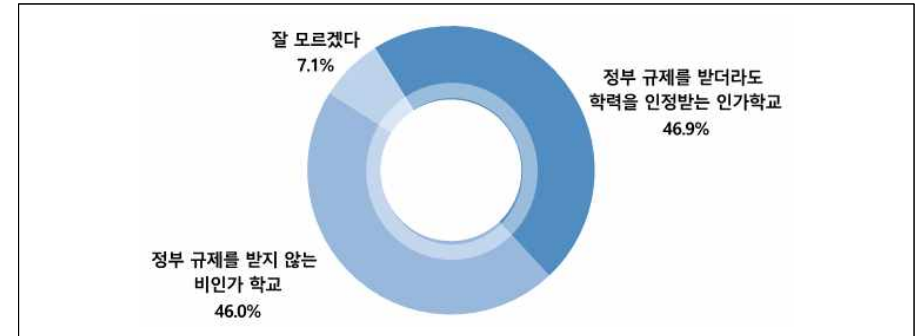
[그림]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통학 형태 (단위 : %)



4)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인가형태

이번에는 선호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인가 형태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 '정부 규제를 받더라도 학력을 인정받는 인가학교' 46.9%, '정부규제를 받지 않는 비인가 학교' 46.0%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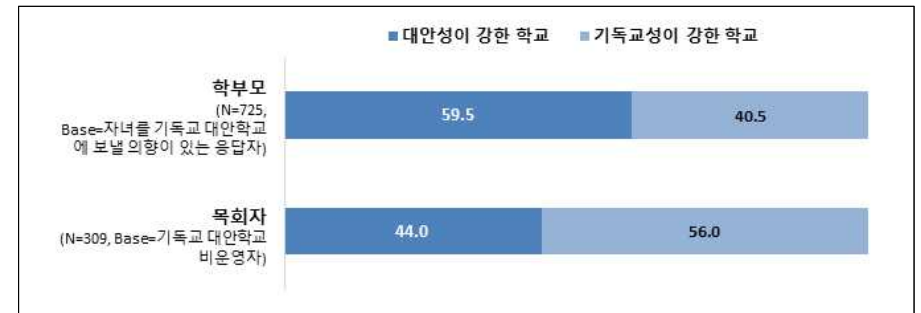
[그림]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인가 형태 (Base=기독교 대안학교 비운영자, N=309, 단위 : %)



5)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성격

- 목회자들은 '기독교성이 강한 학교'(56.0%)를 '대안성이 강한 학교'(44.0%)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부모들은 '기독교성'(40.5%)보다 '대안성'(59.5%)을 더 선호했다. 학부모의 요구와 목회자의 생각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림] 희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성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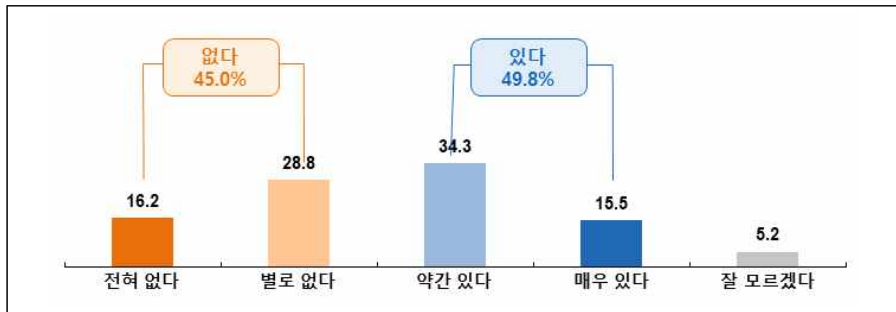


6)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는 경우 설립 의향

- 학교 형태, 기숙형/통학형, 인가/비인가, 교육 과정 등에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무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는 목회자가 46.8%나 되었다. 특히 '매우 있다'는 적극적인 의향자도 1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는 경우 설립 의향

(Base=기독교 대안학교 비운영자, N=30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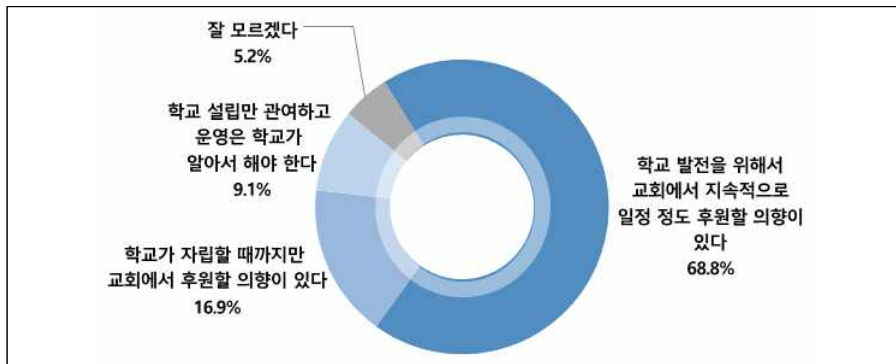


7) 원하는 조건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 후원 의향

- 본인이 선호하는 조건의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무교회에서 설립할 의향이 있는 목회자(N=154)를 대상으로 교회에서 학교 운영비용을 후원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정 정도 후원할 의향 있다' 68.8%, '학교가 자립할 때까지만 후원할 의향이 있다' 16.9%였다. 일단 설립하게 되면, 재정 후원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원하는 조건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 후원 의향

(Base=원하는 조건의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의향자, N=15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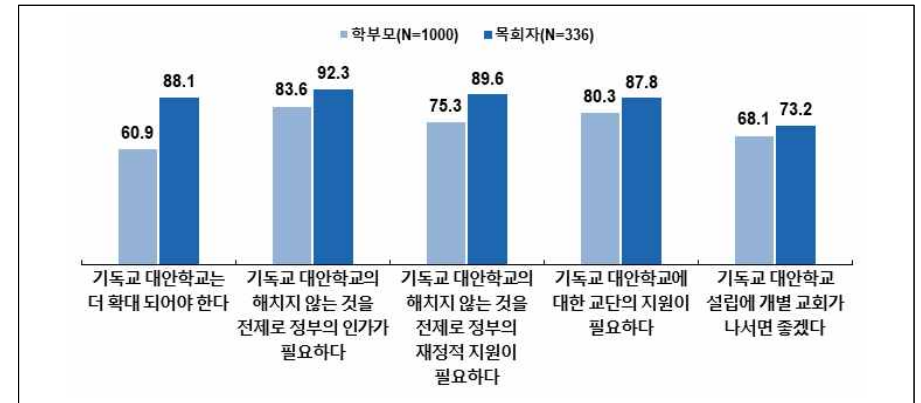
6.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1)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 목회자들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다수인 88.1%가 동의하였으며,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개별 교회가 나서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4명 중 3명 가까이(73.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4점 척도, 매우+약간 동의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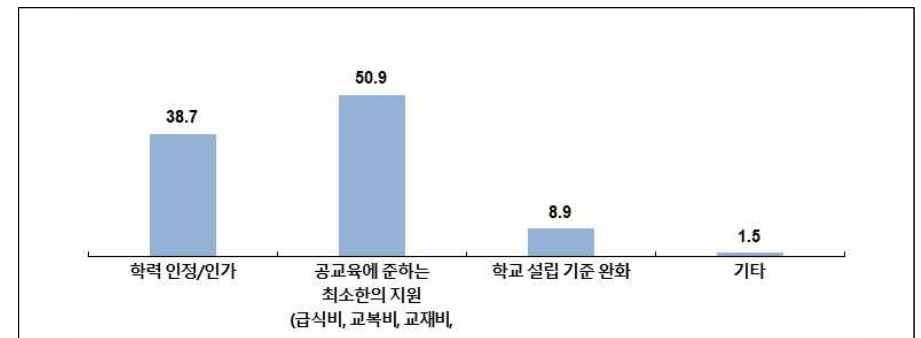


2)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

-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 가운데 '공교육에 준하는 최소한의 지원'이 5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력 인정/인가' 38.7%, '학교 설립 기준 완화' 8.9%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

(Base=전체, N=33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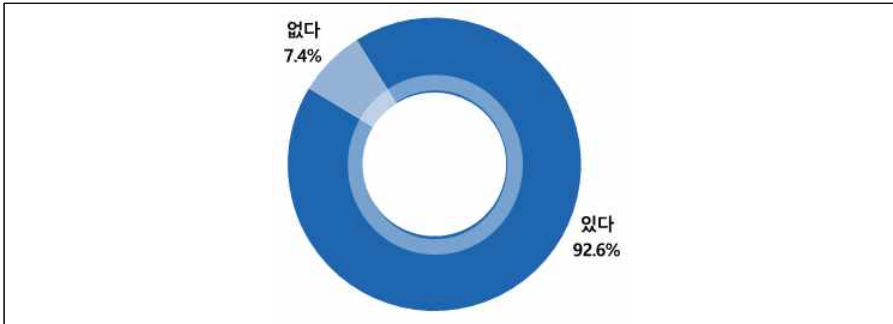


7. 기타

1) 지역 사회의 기독교적 보육(돌봄)과 교육을 위해 교회 공간 제공 의향

- 목회자들에게 지역사회에서 기독교적 보육(돌봄)과 교육을 위해 교회 공간을 외부에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목회자의 92.6%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교회의 공적 역할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보육(돌봄)을 위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가 교회 공간을 제공할 의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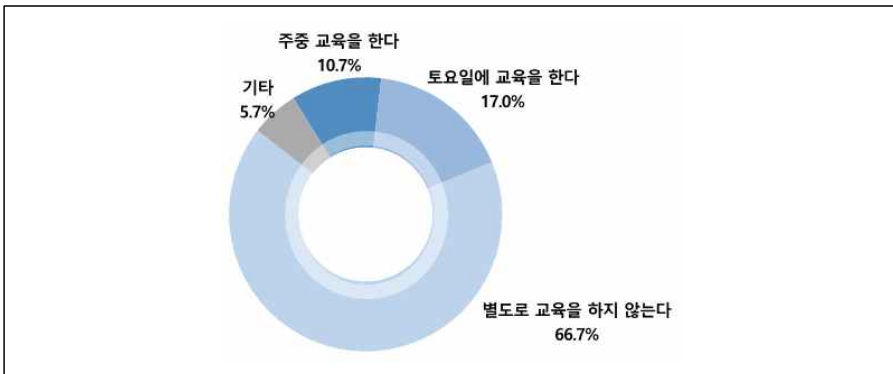
[그림] 지역 사회의 기독교적 보육(돌봄)과 교육을 위해 교회 공간 제공 의향 (Base=전체, N=336, 단위 : %)



2) 주중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 주일 교육 이외에 별도로 고등학생 이하 학생을 위해 교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주중(10.7%) 또는 토요일(17.0%)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였고, 별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66.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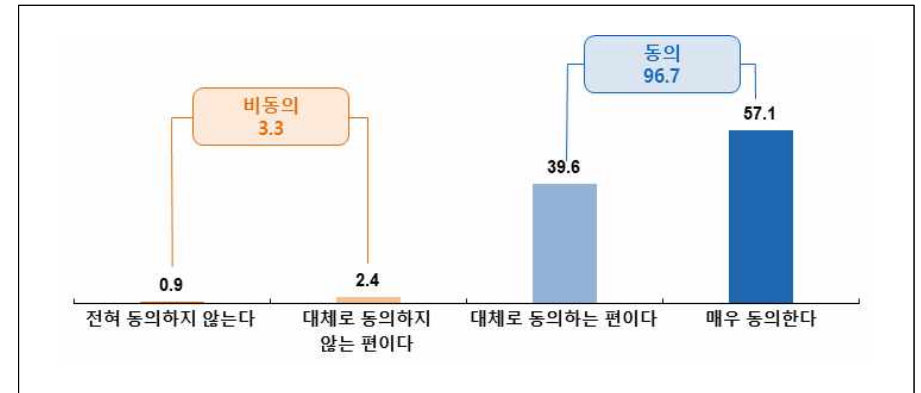
[그림] 주중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Base=전체, N=336, 단위 : %)



3) 주중 청소년을 위한 신앙 교육 필요성

청소년 신앙교육 관련, 주일 교육만으로 신앙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절대 다수의 목회자(96.7%)가 '동의한다(매우+약간)'고 답했다. 특히 57.1%의 목회자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해 적극적인 주중 교육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중 청소년을 위한 신앙 교육 필요성 (Base=전체, N=336, 단위 : %)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목회자 및 학부모 인식 조사 보고서

CTS 기독교TV

조사 수행기관 : ㈜지앤컴리서치